

# “불교는 시작도 끝도 수행...성불의 씨앗 심어야”

## ‘고승 초청 대법회’ 열고 300여 불자와 더불어 철야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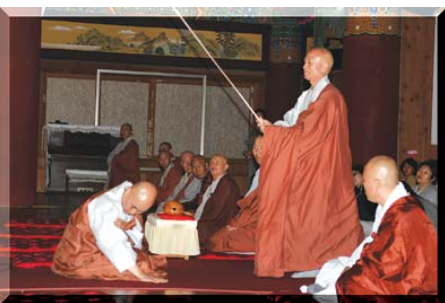


테스크 초대석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한 도량에 만인이 존경할 만한 큰스님 한 분이 있어도 불자들에게 큰 위안과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여섯 분의 큰스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한 법당에서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기쁨이었는가? 10월 23일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 극락전은 ‘극락’이었다.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가 열렸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사자후로 시작된 법회는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수행자들을 위로하는 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철야정진으로 진행됐다.

수석사 수좌 설정 스님, 前 조계종 중회의장 지하 스님, 지리산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 백양사 유나지선 스님,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이 이날의 용맹정진을 이끌었다. 수석사 총무 무애 스님과 정혜사 임승선선 스님, 한국미얀마 선원장 산디마 스님도 불자들이 함께 선정 삼매에 들었다. 40분 정진과 20분 방식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용맹정진에는 3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24일 아침 법회가 끝난 뒤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며 “정진의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모습(위사진) 참석 때 경책 받는 법을 시범보이는 혜인 스님(왼쪽)과 설정 스님.

“법회가 아주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큰스님들을 초청해 이런 법회를 연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약천사는 20년이 넘는 기간의 불사를 거쳐 오늘날의 도량을 이루었습니다. 이 도량은 불법홍포와 사회교화 그리고 요익중생과 동성불도(同成佛道)를 활동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는 저의 은사인 일타 큰스님의 유자이고 약천사 모든 대중의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약천사 불사가 시작될 때 ‘원만불사도 중생(圓滿佛事度衆生)’이란 글을 보내셨습니다. 불사를 잘 회향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가르침이었지요. 그래서 4가지의 활동목표를 정하고 수행과 포교의 도량을 가꾸고 있습니다. 큰스님들을 초청해 불자들에게 정진하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것은, 평생 정진에 매진하시는 큰스님들의 가풍을 본받으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수행의 기회야말로 승속을 하나로 융화시키고 지나친 기복의 풍토를 쇠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밤 동참한 불자들은 여러 큰스님들의 흐트러짐 없는 정진력을 보고 큰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약천사에서 이 같은 형태의 법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었는데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소감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터를 잡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단칸집이 전부였어요. 그런 곳에서 20년 넘도록 불사를 추진하며 힘든 일도 많았고 힘들 때마다 뼈를 사이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불자들이 더불어 정진하는 마음으로 도량을 가꿔왔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도움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보답해야 할까 늘 고민이었지요. 그래서 큰스님들을 모셔서 함께 정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경전에도 ‘칠보로 탑을 짓는 것보다 한 구절의 경전말씀을 전하는 공덕이 크다’고 했잖아요. 큰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좌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기의 주인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 하룻밤의 수행 공덕은 성불의 귀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연이 헛되지 않아서 모두 성불하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이야말로 불사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수행에서 얻는 보람보다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불자는 수행과 전법이 사명입니다. 여기저기 도량이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도 수행과 전법을 위해서이지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요즘 불교계에는 여러 형태의 수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수행불교는 지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행에 소홀하거나 욕심이 생기고 권력과 재물에 집착이 생기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에서 시작해 수행에서 끝나는 가르침입니다. 수행불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과 재가자를 구별할 것 없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전법하는 기회를 자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승가는 지나친 권위주의를 버려야 하고 재가는 기복과 기복을 버리고 수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부대중이 교단을 청정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량을 둘러보니 곳곳에 스님의 원력과 제주지역 불자들의 불심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기 지명이 서귀포잖습니까? 서쪽은 극락세계이니 극락으로 돌아가는(귀의하는) 송고한 곳이 바로 서귀포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이유도 청정불국토를 장엄하는 진정한 수행의 도량이고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실천의 도량이고 일체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는 원력이 큰 도량이란 뜻을 잠시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 불자뿐만 아니라 이 도량에 한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은 다 성불의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직 크고 작은 불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사를 위한 불사가 아니고 수행과 전법의 도량을 일구는 일이므로 불사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임태기 기자



### 큰스님들의 사자후

### “목숨 떼어 놓고 오로지 정진에 몰두하라”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시작하며 법석에 오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중국 역경원장은 법어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총실하라”고 강조했다. 월운 스님은 “계 정해 3화를 부지런히 닦으면 순간 순간 안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며 “부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자정부터 용맹정진이 시작되자 큰스님들이 직접 정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세를 일러주는 등 엄숙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수석사 수좌 설정 스님은 “목숨을 떼어 놓고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하여 삶

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용맹정진”이라며 “순간이라도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도 “참선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며 “조건도 이 유도 따지지 말고 밀어붙이면 누구나 성성적화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날 정진의 유나를 맡은 지하 스님은 “정진 중 일체 묵언하고 옮겨 다니지 말고 경책을 순응하라”며 정진 규칙을 발표했고 지선 스님은 참선의 자세를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입선(入禪)에 앞서 정진중에 경책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설정 스님과 혜인 스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 참가자들이 더욱 분발심을 냈다. 장군죽 비를 든 설정 스님은 “경책을 달게 받는 것도 수행”이라며 일념정진을 당부했다. 임태기 기자

##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대운열기가 앞-뒤, 위-아래,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대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 롬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쟁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마늘 좋은 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간편하고 먹기좋은 ‘이용주 흑마늘 환’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자연 숙성 시킴으로써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생마늘에 비해 향산 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폴리페놀의 산화 및 황색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곰보약방가 흑마늘” 이래서 믿음이 간다

-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 일체의 첨가물없이 시기별유시린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www.msdfarm.co.kr

1팩스(30팩) W45,000  
 2팩스(60팩) W90,000  
 \*2팩스 구입시 숙성흑마늘 (판매가 ₩18000) 2x6팩 증정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7일 → 숙성 14일 → 숙성 21일 → 숙성 28일

이용주 흑마늘 환 세트  
 \*4개월분 W89,000

숙성 흑마늘  
 \*1개월분(2x15팩) W45,000

농협 946-12-362513 (매곡주·최경관) :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판매문의 : 김강선원 명명스님 017-587-7193 : 080-353-5000